

조형활동을 통한 미술교육이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에 미치는 효과

허정무¹⁾, 고진옥²⁾, 고미옥³⁾

Influence of Art Education through Formative Activities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Drawing Representation Ability

Jeong-Moo Hurh¹⁾, Jin-Oak Koh²⁾, Mi-Oak Koh³⁾

요 약

이 연구는 조형활동이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어린이집에 취원하고 있는 만 5세 유아 38명을 대상으로 조형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다음 그림표상능력검사를 실시하였다. 25회의 조형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그림표상능력 검사를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사전검사와 마찬가지로 담임교사와 보조교사가 빈 교실에서 일대일로 유아를 면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조형활동을 통한 미술교육이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간의 차이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형활동을 통한 미술교육은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조형활동을 통해서 그림표상능력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이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 미술교육, 조형활동, 그림표상능력, 자기표현능력, 그림표상능력검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out how the formative activities have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drawing representation ability. This study selected 38 children who are 5 years old in full in D Kindergarten located in Jeonju City, Jeollabuk-do as the subjects. In pre-test and post-test, drawing representation ability were examined and the tests were conducted with formative activity programs on every Wednesday for 25 weeks.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for data processing, t-test was conducted with SPSS/WIN program in order to compare the effects of formative activity programs with the significance level at 5%. Paired t-test

Received (May 18, 2016), Review Result (June 1, 2016)

Accepted (June 9, 2016), Published (July 31, 2016)

¹⁾(Corresponding Author) 368-701 Dep.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rea Nat'l Univ. of Transfortation. Jeungpyung-eup, Jeungpyung-gun, Chungcheongbuk-do, Korea
email: jmhuh@ut.ac.kr

²⁾565-701 Dep. of Child Welfare, WooSuk Univ. Samnye-eup, Wanju-gun, Jeollabuk-do, Korea
email: kojinoak@hanmail.net

³⁾565-701 Dep. of Child Welfare, WooSuk Univ. Samnye-eup, Wanju-gun, Jeollabuk-do, Korea
email: komiok1105@hanmail.net

was conducted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The core findings in the research are as follows. Art education through formative activities has effects on the sub-factors of the development of drawing representation ability of children. It was proved that art education through formative activity had important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drawing representation ability. Since art education through formative activities is effective education program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drawing representation ability, it is concluded that various art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expanded and implemented in order to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drawing representation ability in children's educational institutions.

Keywords : art education, formative activities, drawing representation ability, elf-expression skills, drawing representation ability test

1. 서론

조형활동은 인간의 감정과 사고를 표출할 수 있는 시각적 표상활동이며, 유아들은 다양한 조형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 느낌, 생각한 것을 표현한다.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여 조형활동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유아들은 보다 창의적인 자아를 깨닫게 된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조형활동은 유아들이 신체발달뿐 아니라 인격형성에 크게 이바지한다. 이러한 주위 환경은 유아들의 미적인 감각을 키워주게 되고 조형적 형태에 대한 탐색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요소들(점, 선, 면, 색, 질감, 명암, 공간) 등에 대한 유아들의 인식과 지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형태를 탐색해 보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관찰하면서 다양한 사고능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주므로 예술적 요소들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형활동은 유아의 각 영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유아들의 전반적인 발달을 도모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발달을 위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조형활동이 발달단계에 알맞게 제시되어야 한다. 지도교사의 기호에 따라 좌우되는 창작물이 아니라 유아의 개성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창의적인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창의성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성들은 단순히 길러주는 것만으로 창의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음을 입증한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특성들을 조형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로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대부분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에 속하며 이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조형활동이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추진하였다.

2. 이론적 배경

창작표현활동인 조형활동은 인간이 지닌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시 지각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지성과 감성의 사이를 가능한 한 좁혀주고 서로 간에 균형감을 이루어 조화로운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조형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으로서의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기 위하여 유아의 능력을 표현활동이라는 즐거운 행위를 통해 올바르게 원만한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1]

조형활동은 단순히 조형기법에 대한 기술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 자신의 창의적 사고가 반영되는 모든 시각적 표상활동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2] 또한, 조형은 인간의 감정과 사고를 표출할 수 있는 시각적 표상활동으로서, 우리의 생활과도 밀접한 예술의 한 영역이다.

유아들의 세계에서의 조형은 생활의 한 부분이며 자기표현의 원초적인 수단이다. 특히 유아들은 생활경험을 통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생각과 감정을 자발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로 가득 차 있다.[3] 더구나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미숙한 유아들은 자신의 세계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방법으로서 조형을 통한 표상활동을 하게 되며, 여기에서 바로 자신의 개성을 창출해 내기도 한다. 유아기의 조형활동이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을 지원하는 가치가 있는 만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조형활동의 일반적인 목적은 조형기술, 즉 어떤 미술기법을 훈련하는 것에 두지는 않는다. 유아기 동안 조형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발달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교육의 목적이 진술되어야 한다. 부모가 원해서 조형활동을 하고, 교사가 만들라고 해서 만들고 하는 것은 유아기 조형활동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다. 유아교육기관의 교사와 부모들이 유아기의 올바른 조형활동을 위해서는 유아들이 만드는 조형작품을 보고 어떻게 상호작용했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유아는 여러 가지 조형활동을 하면서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고, 그때 느끼는 감동과 기분을 더욱 발달시키고 고착시키게 된다. 유아의 독창성은 창의적 능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동안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면서 창의적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표상의 개념은 유아의 조형활동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아의 조형활동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발달이론, 정신분석이론, 인지이론, 지각이론 등이 있다. 발달이론은 Lowenfeld와 Kellogg로 대표되며 이들은 유아의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적 발달단계에 따라 유아의 조형활동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교수법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정신분석이론은 Freud로 대표되며 유아의 조형활동은 일반적인 발달, 개념 발달 혹은 유아들의 지식의 반영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인 감정의 표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지이론은 Goodenough, Piaget로 대표되며 유아는 알고 있는 것을 그리는 것이지 본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유아의 그림에서 발견되는 부정확한 표현과 혼란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 세계에 대한 유아의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인된 현상이다. 따라서 유아들이 이해하고, 성장하고, 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게 되고 그들이 가진 개념이 더욱 정확해지면서 그림에서도 세부

묘사, 복잡성, 정확성이 증가하게 된다. Piaget는 표상을 개념적 표상, 상징적 표상이란 두 가지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지식으로서의 표상을 넓은 의미의 표상으로 보았으며, 유아의 지식은 표상과정을 통하여 습득한다고 하였다. 유아들은 경험에서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거쳐 누적된 기억에 의해 구성된 이미지를 그리기를 통해 표상하기 때문에 표상활동은 기억을 상기시켜 주고 유아들에게 적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지각이론은 Arnheim, Mcfee로 대표되며 유아는 알고 있거나 느낀 것을 그린다기 보다는 지각하여 본 것 그린다고 주장한다. 즉, 표상을 통해 유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고 해석하고 기억을 되살리며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된다. 나아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경험의 정보를 수집하여 유아가 자신의 사고를 재고찰 할 기회를 갖게 된다.[4] Guhtrie와 Su는 유아의 표상능력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를 '인지적 요소', '지각적 요소', '그리기 능력'으로 정리하고 유아가 알고 있는 것을 그린다는 인지적 입장과 시각적으로 지각한 것을 그림을 통해 표상한다는 지각심리학적 견해를 통합적으로 지지하고 있다.[5]

교수학습이론에서 아동의 표상활동은 아동의 학습과정에서 개념 구축 및 사고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학습과정의 매개체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표상활동은 아동의 개념발달 과정의 고차원적인 사고기능으로서 개념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 개념의 정의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표상(representation)이란 정보가 저장되거나 표현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눈앞에 없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을 말한다. 불특정 대상이 아니라 특정 대상을 따라 떠오른 내적인 생각,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담긴 외적인 표현물 모두로 정의된다.[6]

지금까지 수행되어 왔던 아동미술 교수방법에 관한 연구결과들[7][8]에서 미술표상은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아동이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여 이를 유추할 수 있고, 창의력 증진 및 전인적 발달의 매개가 되며, 아동의 인지발달을 이끌 수 있는 지식구성의 의미 있는 단계임이 규명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많은 호기심을 갖는 아동들은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에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경험한 후 그림을 통해 표상하고 다시 재 표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과 사고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고 Edwards, Gandini와 Forman[9]은 레지오에밀리아 교육프로그램 현장적용 결과를 통해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미술표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아동의 표상활동 증진을 위한 교수방법 방안에 대한 모색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10][11]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하는 D어린이집의 만 5세 유아 38명이다. 연구대상은 어린이집 입학 전 교육경험이 없는 유아들로 무선 표집에 의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었다.

3.2 연구 도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사용한 도구는 그림표상능력검사이며, 유아 그림에 출현된 표상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성애[12]가 제작한 '그림표상능력 평가척도'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평가척도는 '기본 도형과 선의 병합 능력', '다양한 색채의 사용 능력', '세부적 묘사 능력' '조화로운 구성 능력', '다양한 형태의 사용 능력', '주제 관련 표상 능력', '창의적 표상 능력', '그림의 완성 능력', '표상과 언어의 연계 능력' 의 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1~5점으로 평가하여 한 유아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45점이다. 그림표상능력 평가척도의 하위 영역별 내용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과 도형의 병합은 선과 기본 도형의 병합의 정도와 선과 선 사이의 연결정도에 따라 측정하며, 다양한 색채는 유아가 사용한 색채의 가지 수에 따라 1가지 색채 사용부터 9가지 이상의 색채 사용까지 측정한다. 세부적 묘사는 형태의 기본 특징이 세밀한 정도에 따라 측정한다. 조화로운 구성은 공간 평면 위에 조화로운 구성 정도를 등분하여 측정한다. 다양한 형태는 유아가 그림으로 표현한 형태의 개수에 따라 1~2가지에서 7가지 이상까지 측정한다. 주제관련 표상은 주제와 관련된 형태의 표현정도에 따라 측정한다. 표상의 창의성은 그림으로 표상된 형태가 사실 그대로인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지 측정한다. 그림의 완성은 공간화면에 전체적으로 색을 칠한 정도에 따라 측정한다. 표상과 언어의 연계성은 그림을 표상한 후 그림에 관하여 그림의 주제와 내용에 대한 유아 설명의 정도에 따라 측정한다.

3.3 연구 절차

실험은 25주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교사훈련,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의 순서로 실시되었다. 무선표집한 연구대상 38명 유아에게 그림표상능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한 유아 당 소요된 시간은 10분 정도였으며 검사는 본 연구자와 2명의 보조자가 함께 실시하였다.

그림표상능력 검사는 선정된 유아들에게 8절지 36색 크레파스를 제공하고 30분 이내에 자유화를 그리도록 하였다. 자유화를 완성한 후 각 집단의 교사는 표상한 그림에 대해 유아들의 설명을 듣고 궁금한 것은 질문한 후에 메모했다. 메모한 것을 토대로 연구자에게 그림에 대해 설명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언어와 표상의 연계성 항목을 점수화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실시한 조형 활동은 25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에 시행하였으며 매일 약 한 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담임교사와 보조교사와 함께 미술활동을 소개하고 단원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그림자료 및 인형 등으로 동기유발을 시킨 다음 준비된 자료를 충분히 탐색하게 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만들 것인지 생각하고 토론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의 조형물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활동내용에 따라 교사 안내형이나 유아 주도형으로 수업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달리 비교집단에 대해서는 자유선택활동을 실시하였다.

25회의 조형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그림표상능력 검사를 사

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사전검사와 마찬가지로 담임교사와 보조교사가 빈 교실에서 일대일로 유아를 면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3.4 자료 처리

전산화된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WIN을 이용하여 t검증을 하였고, 5%의 유의도 수준으로 통계처리를 하였다. 조형활동을 통한 미술교육이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간의 차이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조형활동을 통한 미술교육이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표현능력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차이

[Table 1] Difference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for the children's ability of representational painting

| 하 위 요 인 | 사전검사 | | 사후검사 | | t |
|-----------------|-------|------|-------|------|---------|
| | M | SD | M | SD | |
| 기본 도형과 선의 병합 능력 | 3.31 | .77 | 4.10 | .56 | 3.13** |
| 다양한 색채의 사용 능력 | 3.36 | .54 | 4.37 | .33 | 3.27** |
| 세부적 묘사 능력 | 2.84 | .65 | 3.84 | .57 | 3.15** |
| 조화로운 구성 능력 | 3.00 | .44 | 3.89 | .37 | 3.08** |
| 다양한 형체의 사용 능력 | 2.68 | .59 | 3.63 | .73 | 3.32** |
| 주제 관련 표상 능력 | 3.21 | .77 | 3.95 | .85 | 2.87* |
| 창의적 능력 | 2.58 | .78 | 4.00 | .62 | 2.72* |
| 그림의 완성 능력 | 4.05 | .53 | 4.68 | .49 | 2.33* |
| 표상의 언어와의 연계 능력 | 3.42 | .88 | 4.10 | .69 | 3.31** |
| 전체 그림 표상 능력 | 28.40 | 3.12 | 36.58 | 4.88 | 7.78*** |

* $p < .05$ ** $p < .01$ *** $p < .001$

[표 1]에 의하면,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 수준은 사전-사후에 걸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7.78$, $p < .001$). 사전검사의 평균($M=28.40$) 보다 사후검사의 평균($M=36.58$)이 높게 나타나서 조형활동을 통한 미술교육은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조형활동을 통한 미술교육이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가를 그림표상능력 발달을 구성하는 9 가지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 도형과 선의 병합 능력과 관련된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 수준은 사전-사후에 걸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13, p < .01$). 사전검사의 평균($M=3.31$) 보다 사후검사의 평균($M=4.10$)이 높게 나타나서 조형활동을 통한 미술교육은 기본 도형과 선의 병합 능력과 관련된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색채의 사용능력과 관련된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 수준은 사전-사후에 걸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27, p < .01$). 사전검사의 평균($M=3.36$) 보다 사후검사의 평균($M=4.47$)이 높게 나타나서 조형활동을 통한 미술교육은 다양한 색채의 사용능력과 관련된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세부적 묘사 능력과 관련된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 수준은 사전-사후에 걸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15, p < .01$). 사전검사의 평균($M=2.84$) 보다 사후검사의 평균($M=3.84$)이 높게 나타나서 조형활동을 통한 미술교육은 세부적 묘사 능력과 관련된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조화로운 구성 능력과 관련된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 수준은 사전-사후에 걸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08, p < .01$). 사전검사의 평균($M=3.00$) 보다 사후검사의 평균($M=3.89$)이 높게 나타나서 조형활동을 통한 미술교육은 조화로운 구성 능력과 관련된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다양한 형체의 사용능력과 관련된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 수준은 사전-사후에 걸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32, p < .01$). 사전검사의 평균($M=2.68$) 보다 사후검사의 평균($M=3.63$)이 높게 나타나서 조형활동을 통한 미술교육은 다양한 형체의 사용능력과 관련된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주제 관련 표상능력과 관련된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 수준은 사전-사후에 걸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87, p < .05$). 사전검사의 평균($M=3.21$) 보다 사후검사의 평균($M=3.95$)이 높게 나타나서 조형활동을 통한 미술교육은 주제 관련 표상 능력과 관련된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창의적 능력과 관련된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 수준은 사전-사후에 걸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72, p < .05$). 사전검사의 평균($M=2.58$) 보다 사후검사의 평균($M=4.00$)이 높게 나타나서 조형활동을 통한 미술교육은 창의적 능력과 관련된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덟째, 그림의 완성 능력과 관련된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 수준은 사전-사후에 걸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33, p < .05$). 사전검사의 평균($M=3.42$) 보다 사후검사의 평균($M=4.10$)이 높게 나타나서 조형활동을 통한 미술교육은 그림의 완성 능력과 관련된 유

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홉째, 표상의 언어와의 연계 능력과 관련된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 수준은 사전-사후에 걸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31, p < .01$). 사전검사의 평균($M=3.42$) 보다 사후검사의 평균($M=4.10$)이 높게 나타나서 조형활동을 통한 미술교육은 표상의 언어와의 연계 능력과 관련된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첫째,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 수준은 사전-사후에 걸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7.78, p < .001$). 사전검사의 평균($M=28.40$) 보다 사후검사의 평균($M=36.58$)이 높게 나타나서 조형활동을 통한 미술교육은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었다.

둘째, 그림표상능력 발달을 구성하는 9 가지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조형활동을 통한 미술교육은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 하위요인 모두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조형활동을 통한 미술교육은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조형활동을 통한 미술교육은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을 촉진시켜 주는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이므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조형활동을 통해서 그림표상능력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이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조형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조형활동을 통한 미술교육은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에 중요한 미치는 교육활동이므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조형활동을 통하여 그림표상능력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조형활동을 통한 미술교육이 유아의 그림표상능력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조형활동을 통한 미술교육이 창의성 발달을 비롯한 유아들의 전반적인 행동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 보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조형활동을 통한 미술교육이 유아의 인지적·사회적·정서적·신체적 발달에 미치는 효과가 종합적으로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표집된 연구대상이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과 환경에서 진행되어지는 조형 활동을 통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Jeong, Kim. Analysis of Early Childhood's Portrayal (1975). Seoul: Baekrok Press.
- [2] Mi-Deug, Kim. The Effect of Formative Activity Based on Art Element on Young Children's Creativity(master's thesis) (2003), Nambu University.
- [3] Yun-Ock, Lee. Developing Training Programs for Improving Self-Esteem of Early Childhood. Student Life Research (1998), Vol. 16, Seowon University.
- [4] Yeon-Hwa, Cha. The Effect of Using Wordless Picture Books on Young Children's Drawing Representation and Language Abilities(master's thesis) (2000). Chonnam University.
- [5] Sung-Ae, Chi.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Art Education Program Based on Multiple Intelligence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05), Vol. 42, No. 9.
- [6] Jong-Hee, Lee. The Concept of Represent : Symbols, Imag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mi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1998), Vol. 19, No. 1.
- [7] Sung-Ae, Chi. The Effects of ART Teaching Methods on Children's Representation 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2001), Vol. 21, No. 1.
- [8] Schirmacher, Wolfgang. German 20th Century Philosophical Writings (2002). Continuum.
- [9] Carolyn Edwards, Lella Gandini, Forman, George. Hee-Jin, Kim & Moon-Ja, Oh(trans.). Regio Emillia's Early Childhood Education (2006). Seoul : JeongMinSa Press.
- [10] Yun-Joo, Kim. A Study on Art Teaching Method and Children's Drawing Performance(master's thesis) (2000). Chonnam University.
- [11] Sung-Ae, Chi. The Effects of ART Teaching Methods on Children's Representation 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2001), Vol. 21, No. 1.
- [12] Sung-Ae, Chi. The Effects of ART Teaching Methods on Children's Representation 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2001), Vol. 21, No. 1.